

[성경공부를 위한 효과적인 언어사용법 6]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위하여

김완일 목사 / 1994

성경적인 언어는 인간의 생활과 내면세계에 대한 솔직한 진술이다. 종종 성경을 가르치는 인도자들은 위대한 진리를 위하여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나쁜 성향이 있다. 성경을 가르칠 때 인도자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집단의 비도덕성이나, 기독교와 비기독교적인 생활과의 간단한 차이나, 복음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인가에 대해서나 삶의 어려움을 얼마나 쉽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도자는 종종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성경공부 인도자는 복음대로 살기 위해 매일매일 투쟁하면서 평범한 참석자들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그런 문제들에 대해 솔직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인도자의 언어는 진실되고 솔직한 말이어야 한다. 인도자의 솔직한 실수나 감정을 사실대로 고백할 때 참석자들은 존경과 신뢰를 갖게 된다.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친근감과 인간적인 가까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공부에 참석한 사람들은 말씀을 인도하는 인도자도 연약한 인간임을 잘 알고 있다. 아무리 가장하고 인위적인 권위를 세우려 해도 무익한 일이며, 이것은 오히려 위선으로 비치게 된다. 솔직하지 못했던 참석자들에게 솔직한 언행을 보여줄 때 성도들은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의 도덕적인 힘은 솔직함에 있다. 오늘날 설교든 강의든 성경공부이든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중의 하나는 커뮤니케이터(Communicator)에 대한 신뢰감의 부족이다.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는 참석자들은 인도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인도자의 삶을 생각하게 된다. 삶이 없는 메시지나 생활과 상치되는 말씀전달은 참석자 스스로 마음과 귀를 닫게 만드는 것이다. 솔직한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허위-이식을 버려야 한다.

인도자가 증언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먼저 오셔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 부활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숨김없이 나타내셨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솔직한 인격적 언어로써 말씀하셨다. 인도자의 말이야말로 진실하고 정직한 인격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진실된 인격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참석자와 “관계를 맺는 인격”이 될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향하여 먼저 커뮤니케이션 하셨음을 말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인 인간의 본질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이란 용어로 정의되기도 한다. 솔직한 언어 사용만이 인도자와 참석자 간의 메시지의 교환, 즉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가능하게 된다.

(계속)

* 출처 - 온누리신문